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제9회〕

權 五 達
편집위원

공자孔子【주】(承前)

▲ 공자 화상畵像

애공 13년(기원전 482년), 공자 70세에 말하기를 ‘ 나이 일흔이 되니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 ’고 하였다. 공자는 만년에 《역(주역周易)》을 좋아하여 〈단彖〉、〈계繫〉、〈상象〉、〈설괘說卦〉、〈문언文言〉편을 정리하였고, 죽간竹竿을 꿴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질 만큼 수없이 읽었다. 공자가 말하기를 ‘ 하늘이 만약 내게 몇 년의 시간을 더 준다면 나는 《역》의 문사文辭와 의리義理에 다 통달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였다.

공자는 네 가지 방면으로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문文(학문)、행行(행실)、충忠(충성)、신信(신의)이다. 그리고 네 가지 금지시킨 것은 억측하지 말 것、독단하지 말 것、고집하지 말 것、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 것 등이다. 공자가 신중히 생각했던 것은 재계、전쟁、질병이었고, 이익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이익에 대해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운명과 결부시켜 말하거나 인덕仁德과 관련지어 말하였다. 제자를 가르칠 때 발분하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았고, 또 한 가지 문제를 가르쳐서 이와 유사한 다른 세 가지 문제를 물어오지 않으면 다시 되풀이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향당鄕黨에서는 공손하여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과도 같았으나 종묘나 조정에서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면서도 오로지 신중히 하였다. 조정에서 상대부들과 이야기할 때는 태연하면서도 할 말을 능히 하였으며, 하대부들과 이야기할 때는 온화하면서도 즐겁게 대하였다. 군주의 궁문을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였고, 그 앞으로 빨리 걸어 나아갈 때는 단정하게 예의를 차렸다. 왕이 그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명하면 정성을 다하는 표정이었으며, 왕의 부름이 있을 때는 마차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달려갔다. 생선이 상했거나 고기가 부패했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잡아서 멋대로 잘라놓은 것은 먹지 않았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으며, 상喪을 당한 사람 곁에서 식사할 때는 배불리 먹는 일이 없었다. 곡哭한 날은 종일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맹인을 보면 비록 그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표정을 바꾸어 동정을 표시하였다.

공자는 ‘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 ’고 했으며, ‘ 덕을 닦지 않는 것、학문을 강습하지 않는 것、의로운 이치를 듣고도 좇아 행하지 않는 것、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은 것, 이 몇 가지가 바로 내가 우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노래를 시켜봐서 잘 부르면 다시 부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를 따라 불렀다. 괴이한 것、폭력、문란한 것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자공이 말하기를 ‘ 선생님의 《시》、《서》、《예》、《악》에 대한 가르침은 들을 수 있으나 천도天道와 성명性命에 관한 가르침은 들을 수 없었다 ’ 하였다. 안연顔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 선생님의 도학은 우러러볼수록 높고, 깊이 뚫을수록 견고하며 앞에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 홀연 뒤에 가 있다. 선생님은 차근차근 단계로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풍부한 전적과 문장으로 나를 박학하게 해주고, 예의와 도덕으로 나를 절제하도록 하니 내가 학문을 그만두고자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내가 재주를 다해보았지만 선생님의 학문은 내 앞에 우뚝 서 있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방법이 없다 ’고 하였다. 달항達巷(당黨의 이름)이라는 당黨(500가家가 1당) 사람이 말하기를 ‘ 공자는 참으로 위대하다. 하지만 아깝게도 박학하면서도 일예一藝의 명성을 세우지 못하였다 ’고 하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 나는 어떤 예藝로 명성을 세울까? 마부가 될까? 사수射手가 될까? 나는 마부가 되겠다 ’고 하였다. 자뢰子牢(공자 제자)가 말하였다. ‘ 선생님은 “ 나는 등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기예를 배울 수 있었다 ”고 하였다. ’

노나라 애공 14년(기원전 483년), 공자 71세 봄에, 곡부曲阜(노나라 도성) 서쪽 대야大野(지금의 산동성 거야현巨野縣 북쪽에 있던 사냥터)에서 수렵을 하다가 숙손씨叔孫氏의 마부 서상鉏商이 괴상한 짐승을 잡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상서로운 일이 아니라 여겼다. 사람을 시켜 공자에게 고하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 그것은 기린이다. ’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그것을 취하여 돌아왔다. 기린을 보자 공자가 말하기를 ‘ 도道를 행하려는 나의 희망도 이제 다 끝났구나! ’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 옛날처럼 황하에서 용이 도판圖版을 메고 나타나지도 않고, 낙수洛水에서 거북이 서판書版을 지고 나타나지도 않으니 나의 희망도 이제 끝나는가보다! ’ 하였다.

이 무렵 후대 사람들이 존중하여 ‘ 복성複聖(공자의 제자로써 거듭하여 성인聖人에 접근한 사람) ’으로 불리는 제자 안회顔回가 41세로 죽었다. 공자는 큰 소리로 울면서 슬퍼하며 말하기를 ‘ 아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 하였다. 안회가 몇 세까지 살았는가, 공자보다 나이가 얼마나 적은가, 몇 년에 졸했는가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왔다. 중국의 대표적 인명사전 《중국역대인명대사전》과 《이십오사二十五史인명대사전》의 기록은 기원전 521년, 공자 31세에 태어나서 기원전 490년, 공자 62세 때 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사마천司馬遷(기원전 145~기원전 86)이 지은 《사기》의 〈공자세가〉와 〈중니제자열전〉에는 공자보다 서른 살이 적다고 하였고, 애공 14년, 공자 71세 봄에 기린이 잡힌 사건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논어》〈옹야雍也〉편과 〈선진先進〉편에서 애공과 계강자의 ‘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하시오? ’의 각 물음에 공자는 ‘ 안회라는 사람이 학문을 좋아했는데 불행히 단명으로 죽었다 ’고 하였다. 광아명은 몇 가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까지의 확정적인 안회의 생몰연대를 제시한다. ‘ 이개李鍇(1686~1755, 자 철군鐵君, 호 미생眉生)의 《상사尙史》에서 “ 안자顔子(안회)는 공자보다 서른 살 아래이고, 41세를 살았다 ” 하였고, 모기령毛奇齡(1623~1716, 자 대가大可, 호 초청初晴, 일명 서하선생西河先生)의 《경문십이經問十二》에서 “ 안연의 사망연대 고증은 《공양전公羊傳》과 《사기》에 올라 있는 바, 실제로 애공 14년(기원전 481년) 봄에 사냥을 하다가 기린을 잡은 무렵이고, 안연이 죽은 때는 공자가 71세 때이고 61세가 아니며, 애공 14년이고 4년이 아니다 ”고 했으며, 전목錢穆(1895~1990, 자 빈사賓四, 강소江蘇 무석인無錫人)의 《선진제자계년고변先秦諸子系年考辨》에서 “ 안자의 사망연대는 자로子路가 죽기 1년 전으로 판단한다 ” 하였고, 이상의 안회의 사망연대、나이、공자보다 적은 나이 이 세 가지 숫자에 근거하면 안회의 출생연대는 노나라 소공昭公 20년(기원전 522년 공자 30세 때)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 하였다.

永嘉言行錄에 앞서 나왔어야할 영가언행록과 쌍벽을 이루는 千年安東權氏의 編年體姓氏史

安東權氏
太師公實記

저자 – 權五焄
저작권자 – 安東權氏太師公實記編纂委員會
보급처 – 安東權氏宗報社
상 · 하 2권 값 15만원
六禮이야기[48,000원] 별책 사은품 증정

4 · 6배판 1630면에 집성된시조태사공의득성이전김알지大輔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族의大河實錄!
文獻世鑑 · 太師權公實記 · 陵洞誌 · 陵洞實記 · 陵洞千年略史등 안동권씨대종중에 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
원색사진판 96면,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 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

별책으로 함께 포장된 960면 정가 48,000원의 六禮이야기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입니다.

安東權氏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 110-044
전화 02)723-4480 · 732-9139